

# 청규-수행가풍·질서 위해 만든 선종만의 제도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⑤**

주제 : 계율과 청규 (9월 3일)  
 법주 : 법혜 스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백승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먹지 않는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선종승가에서는 청규라 합니다.

청규는 대 소승의 경론과 율장에 그 근거를 두고 박약절충(博約折衷)하여 제정했습니다. 때문에 청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대 소승 율장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국 선종의 소의 율장인 <사분율>과 <범망경>의 구성, 계율의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분율>은 금지조항인 바라제목자(波羅提木叉)와 준수조항인 건도부(健度部)로 나뉩니다. 비구 비구니가 지켜야 할 바라제목자는 하면 안 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계(止持戒)라 합니다. 건도 율장에는 계를 받는 법, 계를 살하는 법, 안거하는 법, 자자하는 법 등 20가지의 건도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건도라 하는데 승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와 승가에서 비구의 행동이나 생활하는 바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자지계(止持戒)라 하죠. 의식건도를 근거로 청규가 제정됐습니다.

소승의 <사분율>과 대승의 <범망경> 보살계는 청규의 소의경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범망경>은 보살도를 수행하는 보살이 지켜야 할 금지조항인 섭율의계(攝律儀戒), 일체의 모든 선업을 권장하는 섭선법(攝善法戒), 일체 중생을 위해 이로운 행

을 실천하라는 섭중생계(攝衆生戒)의 사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망경 보살계는 계의 사상을 담은 율장이지 율의 사상을 담은 율장은 아닙니다.

<범망경>의 보살계 사상은 율장의 계율 조항에서 부족한 모든 도덕적인 사상을 보충해 주는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규에서 소승의 <사분율>과 대승의 <범망경>을 수지하는 것은 보살계의 정신으로 <사분율>을 지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장의 목적은 정법규주(正法久住)에 있습니다. 법은 불교입니다. 초기 비구승가는 출가하여 불타의 법을 듣고 성도(聖道)를 완성시켰습니다. 승가는 불도완성의 도량이며 불도실현의 현장입니다. 율장은 승가를 호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대소승 계율 정리, 가려 뽑아

'청규(淸規)'란 선종의 총림에서 수도하는 청정한 많은 대해중(大海衆)이 서로의 불도 완성을 위해 지켜야 할 규구준승(規矩準繩)을 말합니다. 선종사에 있어서 승단의 생활규범을 제정한 청규의 출현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청규를 처음 제정한 사람은 중국 당나라 중엽 백장산의 대지회해(大智懷海) 선사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백장 선사가 제정한 '고청규(古淸規)'는 당말 5대 사이에 모두 없어졌습니다.

북송 승명 2년(1103) 자각종색(慈覺宗贍) 선사는 백장 선사의 '고청규' 사상을 부흥하고자 당시 총림교회를 방문해 행법



9월3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을 가두 매운 사부대중 앞에서 법혜 스님은 "청규의 근본인 계율을 잘 수지하고 보호하는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식(行法格式)의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해 진장부 흥제선원에서 청규 10권을 찬술했습니다. 그것이 <선원청규>로서 현존하는 청규로서는 최고(最古)의 청규입니다.

<선원청규>를 비롯해 송·원·명·청대에 성립된 중국의 제 청규 및 청규의 주석서는 9종입니다. <선원청규> <입중일용청규> <입중수지> <총림교정청규총요> <선림비용청규> <한주암청규> <취수백장청규> <입중수지> <백장청규증의기> 등 9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규는 <선원청규> <총림교정청규총요> <선림비용청규> <취수백장청규>의 4종입니다.

청규의 내용에 따라 <선원청규>와 같은 호법청규와 <취수백장청규>와 같은 호국청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청규는 <입중일용청규>와 <입중수지> <한주암청

규> 등입니다. 협의의 청규는 청규의 내용이 총림의 전반적인 규범이 아닌 어느 특정 선원의 규범이거나 일상의 의식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광의의 청규는 총림 수행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청규를 말합니다. 청규는 율장과 성질이 같아 총림의 수행자들을 보호하고 선종교단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범계자를 처벌하고 재판하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규의 내용은 <사분율>의 바라제목자적인 지지계와 건도의 자지계를 의미합니다.

### 범계자 벌칙은 율장보다 엄해

초기 청규의 내용을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 <선문규식(禪門規式)>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문규식>이란 제목 △승가로부터 선원의 독립과 청규의 제정 △도안자를 장로라고 칭하고 방장에 거주하게 함 △불정을 짓지 않고 범당만 뚫 △승당을 설치하여 대중 함께 거주 △장로의 상당설법 △재족의 범식 △보청(공동작업) △중승의 직무인 실무 설치 △규범을 범하고 승당생활을 어기는 자에 대한 벌칙 △백장회해에 의한 선문의 독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참조해 보면 범당 설립과 승당 생활의 의한 직무 역할, 보청 등이 율장과 비교해 지법개자(持犯開遮)의 해석에 커다란 변화를 보여줍니다. 청규가 범계자에 대

한 징계감마를 어디에 근거해 시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범계자에 대한 벌칙은 오히려 율장의 내용보다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 이의 있습니다. 첫째는 청정한 대중을 더럽히지 않고 공경과 신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착하지 않으면 같이 살지 못합니다. 율장에 의하면 범계자는 계단법으로 다스려서 승원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둘째는 승려의 품위를 손상치 않으면서 불교의 체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청이 소란하지 않고 검욕이나 송사 즉 시비가 줄어들니다.

넷째는 밖으로 허물이 새지 않고 종문의 기강이 잘 보호됩니다. 이 벌칙의 내용은 후대에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청규의 성질이 율장의 바라제목자와 건도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선종의 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장 선사는 율장이라 부르지 않고 청규라고 했을까요?

율장의 조문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율장 불개변(不改變)의 원칙에 의거해 질 수 없습니다. 초기 교단에서는 지법개자

의 합법적인 응응을 위해 정법(淨法) 정어(淨語) 정인(淨人)의 방편을 활용했습니다.

선종은 초기 달마로부터 해능에 이르기까지 선수행에 적합한 독립된 선원이 없었습니다. 백장 선사는 인도에서 성립된 대소승 계율이 중국에서 그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음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장을 수정하지 않고 대 소승의 계율을 박약절충(博約折衷)하여 새롭게 중국에 맞는 '청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종교개혁의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율장 불개변의 원칙을 초월한 일대 혁신적인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청규는 선종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백장 선사의 기본사상은 후대에 성립된 제청규에서 그 전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청규, 율장과 성질 같아

종색은 "참선문도는 계율을 첫째로 삼는다"라고 하며 엄정한 계율의 수지 없이는 삼계의 모범인 불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율의 강조는 선 수행자들에게는 무엇보다 계율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총림을 유지하기 위해 중승이 청규의 근본인 계율을 잘 수지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조계종은 명칭 자체가 6조 혜능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려 시대를 거쳐 종파가 다양하게 번성했는데 조선조에 와서 종파가 통폐합 됩니다.

자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한 통폐합이었습니다. 태종 때는 11종을 7종으로, 세종조로 가면 7종을 선교양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불교 선교양종으로 바뀌지요. 일제시대 때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이름을 찾은 것이 광복 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청규가 전해진 것은 보조 스님 무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보조 스님이 송광사에서 정혜결사했을 때 <계초심학인문>의 내용을 보면 <선원청규>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태고보우 선사 때 백장청규를 간행했다고 하나 서문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총림의 운영과 청규의 시행은 없었으며 선종이 주도한 한국적인 선원 청규가 유통됐습니다.

우리나라 조계종은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선종 교단이 독립유지된

## 청규의 소의경전, 소승 '사분율'과 대승 '범망경' 보살계

## 백장 선사, 율장 불개변 원칙 고수하면서 중국현실에 맞게

## 청규 제정... 일부 학자 종교개혁 의미로도 해석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寺 조청**

- ❖ **산寺 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寺 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寺 조청** 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 **산寺 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오르지 않는 **산寺 참꽃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산寺 靑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풍증과 양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산寺 기형당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산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가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寺 조청원**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개칭

## 제3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공고

■ **대상요양**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3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흥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금을 고쳐서키며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마음으로 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시상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특별상 : 신행, 학술, 교육, 복지, 봉사 부문 약간 명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수상자 선정 기준**  
 ① 대상 승가 부문은 별도의 추천 없이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시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특별상은 교계의 일꾼과 숨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④ 재가 부문 수상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할 수 없고, 단체 부문도 수상 후보 단체의 대표나 임원 등이 직접 추천할 수 없습니다.  
 ⑤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양식) 제 3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② 관련 부문 실적 자료.

■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기간** : 2005년 10월 1일 - 10월 31일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우 121-74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 719-1855, 2606  
 - 홈페이지 : www.kbpl.org / - e-mail : kbpl@kbpl.org

③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접수 소인 유효)

■ **시상식** ①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 14:00  
 ② **장소** -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대법당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홍 승 희

것이 아닙니다. 여건상 중국과 같은 총림  
청규를 시행할 수가 없어 규약 정도로 제  
정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수행자로서 갖추  
어야 할 계학 정학 혜학의 3학을 치우침없  
이 하는 중국 총림청규의 기본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날 조계종 총림의 설치 개념과는 차  
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행 총림의 규정은  
본사 규모에 따라 종무소를 포함해 선원  
강원 올원 염불원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계를 위한 기본 교육을 받은  
후부터 수행진로는 선택 사항입니다.

선적으로 수행하거나 경전 연구를 하거  
나 종무행정 또는 율장 연구 등을 하는 것  
은 본인의 의사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원청규>에는 개인  
의 선택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계종 종헌중범도 결국 청규

총림 대중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해탈과  
총림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계율의 수지는  
승가 본인의 의무입니다. 선정을 익히고,  
부처님의 성교를 수호하고 그리고 맑은바  
소임에 충실하여 종무행정 계율 선정 교학  
염불 등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수행을 했  
던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 청규에는 '사교입선(捨教入  
禪)'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경전을 보지

않고 참선만을 한다든가 참선을 하지 않고  
경전만을 연구하는 등 임의적이고 편파적  
인 수행은 없었던 것입니다.

청규에는 선(禪)이다 교(敎)다 하는 선교  
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엄이나  
반야를 전공한 수행자는 재가인들에게 강  
의를 했는데 그들을 '화엄두(華嚴頭)' 반  
야두(般若頭)'라고 불렀습니다.

불멸 직후 오백결집 때 장로들이 승원  
을 수리했던 것처럼 백장 선사의 보정 정  
신에 의해 총림 대중은 나무를 베고 장원  
에 나가 일을 하고 물을 길고 자급자족을  
위한 정신으로 노동과 수행의 일체를 몸소  
체현하여 왔습니다.

조계종 종헌에 보면 청규는 하나의 의식  
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너무 협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헌  
중범이 아무리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근본  
사상은 율장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종헌중범이 율장과 청규의 근본사상을  
벗어난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청규사상을 위배하게 되어 교단의 정체성  
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성  
격에 의하여 현재의 종헌 중범을 검토해  
보면 조계종의 종헌 중범은 조계종의 청규  
로서 모두 청규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보조 스님 무렵 국내에 유입된 청규  
중국과 달리 협의 규약으로 의미 축소



사부대중이 '청규'의 역사와 의미, 현대적 계승을 살한 법혜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법혜 스님은

1961년 해인사  
에서 자운 스님  
을 계사로 구조계를 수지했다. 63년 해  
인사 승가대학, 72년 동국대학교를 졸업  
했다. 2003년 일본 대정대학 불교학박사  
를 취득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조계종 개혁회의 의

원,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2004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지관 스  
님으로부터 율맥(律脈)을 전수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대구 대각사 주지를 맡고 있다. 저  
서로는 <고려관중점적본선원청규> <고  
려관선원청규역주> <율장> 등이 있다.



유진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질문1 : 기존의 어떤 율장과 법  
규가 선원생활에 방해가 되었기  
에 청규를 제정하게 되었는지요?

법혜 스님 : 저는 율장의 어떤  
조항이 산승생활에 많은 방해가 되었는가를 고민했을  
때 처음 백장 청규 제정 배경과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율장은 결식을 하라, 나무아래 생활하라, 해진 옷인  
분소의를 입어라, 약은 보통 약을 쓰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생활문화가 달라 결식도 할 수 없고 자  
급자족해야 했는데 이런 계율은 불합리했을 것입니다.  
기존의 율장으로는 중국에서 종단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교단의 법규를 만들려  
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사회상황에 맞게 자급자족을 위해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율장에서 금하고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  
해 스님이 직접 노동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환경 속  
에서 청규가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 지금 승단에서 쓰고 있는 계율과 청규가 이  
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혜 스님 : 상당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는 율장과



신성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질문1 : 스님께서는 청규가 <사  
분율>과 <범망경>을 근본사상으  
로 제정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보살계의 정신으로 사분율을  
지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나 현실에서 보살계와 <사분율>이 배치되는 경우 청규  
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법혜 스님 : 보살계의 정신으로 사분율 지키라는 말의  
뜻은 <사분율>은 율이고 <범망경>은 계이기 때문에 이  
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장에 비구는 자율적인 계의 정신  
으로 타율적인 율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계의 정신이 없으면 타율적인 율을 피해야하면서 저지  
를 우려가 있습니다. 계의 사상이 아니면 율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의 정신이 결여된 율은 한갓 법  
틀일 뿐입니다.

<범망경>은 <사분율>을 잘 지키기 위한 보조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사분율>에는 결식하면 주는 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범망경>에 들어서면 식육 · 오신채 금  
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금합니다.

최근 스님들도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 같  
은데 절에서 수행 중에 건강식품을 찾거나, 건강을 핑계  
로 한 육식은 안 된다는 것이 <범망경>에 맞는 해석이  
라고 봅니다.

질문2 : 청규가 '규범을 범하고 승당생활을 어기는 자  
에 대한 법칙'을 율장보다 엄하게 다스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혜 스님 : 제 대답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미  
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장  
의 처벌조항은 청규와 달리 참 부드럽습니다. 율장은 '죄

논 찬

시대 변한다 해도 근본사상 잊지않시다

청규라는 것은 승단과 총림 유지 존속 발전을 위한 금  
율과 준수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변할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부처님과 조상이 남긴 근본사상은 변  
해서는 안됩니다.

율장은 대장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분율> 수계의  
식 근본사상 계율조항 등을 승가의 귀감으로 삼고 있습  
니다. 시대변화에 영향을 받는 청규는 시대에 따라 물려  
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장은 정법을 쓰는 것입니다. 조계종에서는 기존의  
청규를 보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맛과 안 맛과  
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

질문3 : 강원이나 선원에서 정진하다가 몸이 아파 도  
중에 그만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14~15시간씩 참선  
하다보니 오온의 부조화로 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기존의 계율이나 청규  
가 바뀌어야 될 것은 없지요?

법혜 스님 : 출가자가 오온의 조화를 잘 다스리지 못  
해 병을 얻었다는 것은 출가자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현  
대는 자기 실수뿐만 아니라 공업(供業)의 상태에서 사

고나 음식을 공해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  
습니다.

<선원청규>에 보면 연수당이 있습니다. 연로한 스님  
이 수행을 못하고 병나면 연수당주가 지극정성으로 간  
호합니다. '항상 수행으로써 자기 몸을 간수해라, 시봉  
하는 사람은 항상 자애로써 잘 보살펴라'라는 연수당  
규약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나중에 편찮으셔서 아난존자에게 "가사를  
외견으로 집어 퍼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  
속에 살지만 생로병사를 초월하려는 것이 불교의 건강  
유지법입니다.

선사들은 "마음하나 잘 정기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스님께서 건강한 생활을 위  
해 선원의 합한 수행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었는데 부  
처님은 '위법망구(爲法忘憂)'라 해서 진리를 구하기 위  
해 몸을 잊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위구망  
법(爲羈忘法)' 하면 부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  
도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선원에서 좋은 수행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권에 꼬달리지 않으려면 계율 더 알아야

는 무겁지만 법은 가볍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청규는  
사회법과 많이 달랐습니다. 청규 제정당시 교단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엄한 규칙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유어불정맥을 썼던 조선조 500년, 일제 36년 등은  
계율의 암묵시기가었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불교를 망쳤  
습니다. 비구 대처를 나누고 그 후유증이 불교정화로 이  
어졌습니다.

율사들은 목숨 걸고 율맥을 전수하고 청규를 만들어  
전수해 왔습니다. 선종은 법칙을 세워 잘못을 미리 방지  
해왔습니다. 대중을 가버이 보고 법칙을 파괴하면 그 손  
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 율장보다 강한 법칙  
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문3 : 율장에 서하면 안 되는 조항을 청규에서는 허  
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율장과 청규가 배치되는 경우 어  
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법혜 스님 : 율장과 청규가 배치되는 경우에 우리는  
청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율장은 근본대죄로 받아  
들이고, 참회 받을 수 있는 죄는 청규에 의해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규가 아니고 율장에 따르면 저만 해도 동  
화사에 오는 것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차도 금전도  
지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제한적으  
로 허락된 청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동화사에 오  
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청규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여 근본사상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질문4 : 조계종 종헌중범이 율장에 위배된다고 보시  
는지,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기 위해 새로운 청규가 필  
요한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혜 스님 : 현 조계종의 종헌중범은 국가법에 따라  
청규를 참조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구계 보살계의 전  
통, 청정 승가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방대한 법령은 조계  
종을 최대 불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현 종헌중범이 율장에 위배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분율  
장의 근본사상을 흐리게 했을 경우를 말한 것이었습니  
다. 아무리 상위법이라 해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승가는 율장이 아니라 청규에 의존하고, 거기에  
국가의 법률이 상위에 있습니다. 청규에 이렇게 살았으  
면 해도 종헌중범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종헌중범보다 상위법이 국가의 법률이지요. 스님도 군  
에 가야하고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을 나가야 합니다.

종헌중범은, 부처님의 근본사상, 사분율장의 정신, 보  
조적인 범망경의 정신을 살려 독신출가 교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여법 원만하게 수행하  
는데 좋은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종도들은 종단과 힘을 합쳐 총림 등 전반에 대한  
것을 수렴해야 합니다. 율장에는 중앙규구가 없습니다.  
중앙집권체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체제였습니다.

출가 시에 학력, 구분, 연령 제한 등도 율장 정신에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선교유 후득도제는 율장을 더 참  
조해야 합니다. 율장에 의하면 20살이 되면 비구계를  
주고, 은사스님 밑에서 3~7년 계율을 배운 후에 수행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배되니까 당장 고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  
교단은 이관사판을 결해서 수행해야 하는데 너무 사판  
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꼬달리는 종단이 되지  
않도록 계율을 더 알아야 하고 계율에 대한 이해가 넓  
어져야 합니다.

Wellbeing Life
장해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아로하
향적당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속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하는 틈새업종
하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때아한다."
제품의 특징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타이머 장치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온열판 내장으로 썩의 원적외선 유효 성분인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 증대.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에 사용후 45분이면...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속뜸을 할 수 있다.
타이머 장치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의료용구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연구에 의해 개발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속뜸, 좌훈기/음양속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